

참여예산 보건복지분과 워크숍 개최결과

참여예산 보건복지분과 워크숍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워크숍 개요

- 일 시 : 2019. 3. 29.(금) 16:00 ~ 18:00
-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- 참석자 : 참여예산 보건복지분과 위원 및 참석희망 위원 등
- 주 제 : ‘서울시 보건복지정책과 주민참여’
- 발 제 : 한영근 입법조사관(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)
- 진행순서 ※ 사 회 : 윤제영 보건복지분과위원장

시 간	내 용	비 고
16:00~16:10	■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자
16:10~16:20	■ 여는말 ‘워크숍 기획 취지 및 보건복지분과 운영 현황’	사회자
16:20~17:20	■ 발 제 ‘서울시 보건복지정책과 주민참여’	발제자
17:20~17:55	■ 질의응답	참석자
17:55~18:00	■ 폐회 및 안내	사회자

□ 워크숍 결과

[발제내용]

- 해마다 보건·복지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의 체감도는 변화가 없음.
- 수혜자는 주로 아동·청소년, 노인,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반시민, 장애인, 한부모(여성가장) 가정 등에 대한 지출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낮음.
- 보건의료정책은 WTO에서 제시하는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”의 건강개념을 도입하여야 함.

-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은 치료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립병원 운영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함.
-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사업이 이관되어, 기관위임 사무의 형태로 집행되다 보니 수혜대상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움.
-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정책은 평가에 있어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,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그 효과성이 가시적이지 않아 효능감 측정이 어려움.
- 현실적으로 의료공급은 ‘민간-시장-물적’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분별한 양적 경쟁에 치우치고,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으며 의료공급의 과소 및 과밀 지역의 발생으로 지역 간 불균형 상태임.
- 대안 모색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건강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건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건강위험요인에의 차별적인 노출과 취약성을 개선해야 함.
- 시민의 건강은 단순히 보건정책에 의해 향상되지 않으므로 모든 의제에서 주민의 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.
- 정책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행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.

[질의응답]

- 심리지원센터는 25개 구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지?
⇒ 서울시는 3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은평구는 센터명 ‘다독임’에서 마음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‘서울케어-건강돌봄’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
⇒ 현재 은평을 포함한 4개 구에서 시행중이고 올해 10개, 2022년에 전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자치구 현황에 맞춤형

으로 진화하기 위해 개선방향 의견수렴 및 미비점 개선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

[향후 분과운영 방안]

- 보건복지정책 운영 현황과 서울시 복지정책의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 활동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됨
- 본예산 편성 분과위 검토 및 부서사업 모니터링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차기회의

- 일시 및 장소 : 2019. 4. 26.(금) 14:00 ~ 17:00 / 구청 로비
- 활동 내용 : 2020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독려

□ 주요장면



끝.